

## 제5회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을 선발하느라고 많은 선생님들, 또 과학재단 관계자들이 역시 수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 하나하나에 여러분 스스로의 땀이 배어있고 또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행복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배우고 가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때부터 철학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동설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면서 모든 세상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교리가 한때 심각하게 흔들렸죠. 뉴턴의 법칙, 제 3법칙인가요? (웃음) 중력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런 것,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세상은 과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법칙은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지요. 역시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20대에 제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는지, 또는 왜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바르다는 게 무엇인지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20대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계속 뱅뱅 돌다가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 **공존의 지혜, 스스로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것이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을 겸허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되, 그러나 쉽게 결론을 내지 않고 지금 나를 존중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강 결론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신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존재하는 것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 귀한 것이라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이라면 또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요. 스스로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의 방법, 스스로를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를 함께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행복하도록 노력하고 또 모두가 행복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가치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공존의 지혜가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공자님께서도, 또 누구도 모두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모두 다 공존하는 지혜를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했고 그것을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존의 지혜가 아주 높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변호사 시절 새로운 세계 탐구하는 사람들에 부러움 느껴

스스로 행복한 방법,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사법 시험을 합격하고 판사를 잠시 하다가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은 정치를 합니다. 근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지나간 것 사실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일이지요. 사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옳고 그름을 또는 법의 원칙을 판단하는 것인데, 맨날 지나간 것입니다. 남 얘기를, 지나간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탐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비슷비슷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짧은 순간에는 남의 싸움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화해도 하지만 보통은 싸움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부러움을 느꼈던 것이 지난날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 느끼는 사람들의 희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는 이공계를 가라고 유도를 하기도 하고 떠밀기도 했었지요. 사실 제 아이는 이공계 대학을 갔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중단하고 도망을 쳐버렸지만... (웃음) 아마 체질에 안 맞나봐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참 부럽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어떻게든 지난날을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파고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졌던 직업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부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손녀를 키우는데, 물론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 공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좋은 일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쉽지 않은 것이 세상에는 또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더불어 사는 현실 속에서 아마 태초에 인간이 태어날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기록에 남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는 지배의 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배하기를 원하지요.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지배력이 어느 쪽이 더 크냐?’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치하는 사람의 지배력이 좀 더 큰 것 같다고, 재판하는 사람의 지배력이 좀 더 큰 것 같다고, 재판하는 사람과 좀 가까이 있으니까 변호사가 의사보다는 지배력이 좀 더 큰 것 같고 그렇지요.

사실은 의사와 변호사가 직업이 비슷한데, 변호사는 죽어라고 사실을 정리해서 주장해도 인간의 재판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의 목숨을 놓고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 사람이 죽고 살고 건강해지고 안 하고는 적어도 자연의 법칙이든 아니면 하느님의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조금 변호사가 판사, 검사하고 가까이 있다고 조금 더 지배력이 커 보입니다.

이 유혹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 가지지 않은 사람, 지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욕구, 사람이 지배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욕구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필요한 공적 임무를 대리해서 지배하는 것, 공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가지게 되면 사유화하게 되지요.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남들을 억압하고 또 부당하게 지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적어도 지배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이제 지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배받는 것은 더 나쁩니다. 지배받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요. 또 지배 받는 사람이 있어서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하는 구조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면 그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탐구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이 지배 구조 속의 나의 위치는 어디냐, 이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도 나와 우리 민족이 남에게 지배받지 않는 그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부당하게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라야지만 지배받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고, 지배하는 사람이 공정하고 따뜻하고 배려가 있을 때 그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지배받는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서 사회가 공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또한 지배하는 사람들의 허용과 배려에 의해서 사회가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가 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라고 하면 여전히 지배하는 사람 쪽에 서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배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영국이 세계 지배하게 된 것은 과학문명으로 산업혁명 만들었기 때문

누가 세상을 지배했는가. 황하에서도 고대 문명이 있었고, 인더스에서도 문명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대강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배웠

지요. 그때 중학교 때쯤 아마 배운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중에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문명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페니시아 문명에서부터 그리스로, 로마로, 지중해 문명에서 스페인,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영국으로 넘어갔지요.

통상을 한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한 사람이 아니고 통상을 한 사람들이 결국 세계의 1차적인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법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영국으로 확실하게 지배권이 넘어간 것은 영국이 제해권을 잡고 통상로를 확보했다는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다음부터 새롭게 발생한 또 지배의 동력이 했습니다. 과학 문명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과학 문명으로서 산업 혁명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한 것입니다. 왜 과학 문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는가? 베이컨의 경험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영국의 과학 문명을 아마 열었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여러분들 배웠지요? 경험주의 철학을 가진 것입니다. 경험주의 철학이, 말하자면 경험주의 철학이 성공했던 곳에 과학문명이 먼저 일어났지요.

하나의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동시대에 같은 사건이 있다면 종교혁명이 일어났던 것도 그 경험주의 철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종교혁명, 경험주의 철학, 그러면서 이제 베이컨 다음에 뉴턴으로 이어지는 과학문명이 산업혁명을 만들어 냈었죠. 지금까지 가장 우수한 과학문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과학문명 뒷받침 없는 통상은 이길 수 없다**

여전히 그 국가들은 통상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에는 통상이 먼저 하면 됐지만, 이제는 과학문명의 뒷받침 없는 통상은 또 통상의 세계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문명이 앞선 사람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고 적어도 지배하는 나라, 물론 지배하는 사람의 대열에 서서 그 지배의 질서가 보다 더 따뜻하고 보다 관대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결코 남을 잔인하게 복속시키고 남의 권리를 짓밟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주먹을 불쑥불쑥 내밀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배할 수 있는 국가의 대열에 들어서 있어야 세계의 질서를 따뜻하고 배려가 있는 공존의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 데 뭔가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질서 하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배질서 하에서 우리가 소위 보다 나은 공존의 지혜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과학문명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면 한국이 바로 세계질서 속에서 그와 같은 보다 더 가치 있는 세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보람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탐구하는 행복과 지배하는 나라를 떠받치는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쳐다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웃음)

### **과학문명이 만들어낸 갈등 조정 공동체 통합, 정치가 해결할 문제**

물론 과학문명이 결정적 조건이고 그 이후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통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다음 단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경영이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통상의 역량이 과학문명을 최대한, 말하자면 문명이 최대한 힘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왔었죠. 오늘은 그것을 경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돼서 경영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과학문명이 진보를 만들고, 경영이 그것을 돈으로 만들고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 갈등이 생기고 변화에 따르는 고통이 생깁니다. 나는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차를 타고 가고, 나는 손으로 쟁기질, 팽이질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소를 가축을 이용하고 동력을 이용하는 이 경쟁이 이제 생기면 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요.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서 서로 다른 지위에 서게 된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어떻게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배가 사유화되지 않고 지배가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속박이 되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만들고 경영이 만든 변화를, 변화에,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뒤치닥거리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제일 굵은일이지요. 간혹 정치하는 사람은 이 권력을 사유화해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데서 욕을 많이 먹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치의 구조 속에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존하는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정치에 뛰어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족보에 이름, 현고학생보다는 그래도 무슨무슨 장관, 공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지난날의 지배질서의 사고방식이지요.



## 더불어 행복한 사회 만들기 위한 선두에 과학기술 서 있어

대개 이렇게 우리사회가 이제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각자 일을 맡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선두에 과학기술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우리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선두에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진흥정책이랄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비를 하지 못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연구·개발비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엄청 늘었습니다. 또 많은 제도개혁도 있었습니다. 장관을 부총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에 돈을 많이 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시비하지 않아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장학증서를 받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부심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담으로, 부담으로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즐겨라, 좋아하고 즐겨라... 조금 전에 어떤 학생이 이랬었죠? 예, 좋아하고 즐겨라... 좋아하고 즐기기 위한 논리 구성을 제가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웃음) 제 스스로 살면서 왜 정치를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세계에서 과학기술에 가장 성공할 나라 전망

얼마 전에 제가 이태리를 갔습니다. 이태리를 갔는데 그 이태리 총리가 저

를 보고, 첫 번째 한 얘기가, 자기가 미디어랩이라는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세계에서 과학기술에 가장 성공할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냐라고 의뢰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대한민국이다, 이래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아직 우리 연구·개발비 비중이라고 하면 미국의 24분의 1, 일본의 6분의 1,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무슨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도 몇 개 없고, 여러 가지로 부실하고, 우리는 신문 보면 되는 게 없는데..... (일동 웃음)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다른 연구 결과 역시 한국이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거든요. 그거 맞는가 봐요. 확실히 똑똑해요. 어디 갔다 봐도 다 성공해 있어요. 제가 여러 나라 한 50개국 이상을 돌아봤는데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뭘 하든 간에 그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하고 존경 받고 그렇게 그 사회의 주류사회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식도 교류하는 지식만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도 나가시고 국내에서도 공부하고 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은 갈고 닦을 것입니다만, 결국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다 대한민국의 밑천입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살 것입니다.

### **영재 아닌 사람들도 잘 살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해 고심**

저희 정치하는 사람은 이제 영재가 아닌 사람들도 또 비슷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끊임없이 고심하고 궁리하겠습니다. 영재도 국가의 경쟁력이지만 전 국민의 총체적 경쟁력이 높지 않으면 결국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재 경쟁력은 꼭 필요하지만 영재경쟁력 가

지고만은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차고 자기 일에 대해서 열성적이고 또 산업기술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때, 그때 국가 역량이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낙오하는 사람들, 또는 다시 재교육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부국강병, 1세기 이전에 우리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 목표... 오늘날은 부국강병이 아니고 문화강국이 더 높은 목표이지요. 김구 선생께서 이미 60년 전에 이렇게 문화강국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강국의 마지막 대목에는 역시 평화,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 세계 공존의 세계에 있어서 평화와 공존의 질서와 가치를 앞장서서 실현하고 그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평화의 주도자로서의, 또는 모범이 되는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세계화의 모범이 되는 국가, 그것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부국강병, 문화, 그리고 아울러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함께 하는 사회, 그리고 확고하게 평화가 뿌리내린 사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중요한 것이지요.

옛날 농업시대나 소한테 풀 뜯어 먹이던 시대에는 넓은 땅이 자산이었죠. 또 자산이 아니라도 지배하는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은 민주주의와 같은 이런 질서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지배자들의 욕망은 땅만 보면 끊임없이 차지하려고 했었죠. 사람—노예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높은 나라가 실제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 옛날로 치면 영토가 넓은 나라와 같은 나라가 과학기술이 높은

나라이고, 또 국토가 좁든 넓은 간에 평화를 확고하게 보장해 갈 수 있는 국가가 가장 앞선 나라이고, 나아가서 그것이 주변에 질서까지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평화를 전 세계의 질서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 그런 국가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국가입니다.

## 세계 문명 중심 되려면 과학기술문명 발전해야

우리가 지금 2020년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GDP 총량이 앞지르든 간에 어쨌든 경제의 규모는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규모에 있어서 경제의 중심은 동아시아 중심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시아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문명이 더 앞서 있는 곳이 한 발 앞선 문명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더 큰 경제를 가진다고 해서 보다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과학기술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과 맞대결 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지려면 과학기술문명이 미국의 수준을 따라잡아야 비로소 유럽과 서구와 대등한 그런 문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지금도 블랙홀 같은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여서 앞지르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격차는 점차 점차 좁아져가고 있습니다. 그 좁아진 격차만큼 대통령의 키 높이도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과학문명이 이만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새 어디 가서, 어떤 나라 지도자하고도 키를 대면 별로 꼴리지 않습니다. 제가 키가 좀 물리적으로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생물학적

으로 작기는 합시다하는, (일동 웃음) 키는 작아도 기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격차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그 위치에 있지요.

### 진정한 의미의 중심 되려면 평화의 질서 주도해나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문명의 중심이 되려면 평화를 주도하는 그 지역의 평화를 만들어 내는 EU같은 국가, 과학기술 문명에 있어서 이미 미국 쪽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EU가 성공한다면 EU의 질서는 평화와 공존의 질서에 한발 앞서간 것이지요. 그 질서가 큰 실수, 큰 실패 없이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면 저는 유럽의 문명이 적어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유럽의 문명이 보다 더 앞서있는 문명으로 모범되는 문명으로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여러분 개개인은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더불어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 이 실험을 유럽이 지금 하고 있지요. 평화의 질서를 굳건하게 뿌리내린 사회, 그 사회가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회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 아무리 떠들어대요,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께 잘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평화의 질서를 주도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께서 주셔야 합니다.

행복하시죠?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 아마 여러분 중에는 법학대학원 가실 분

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웃음) 혹시 가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대학원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학 영역에도 과학기술의 지식이 필요해서, 아주 좁은 영역이지만 거기에도 그런 과학지식이 필요에 앞선 사람이 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졸업하신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의학전문대학원을 갔는데, 의학 영역에서도 치료하고 돈벌이 하는 의료 영역도 있지만 거기에도 또한 많은 연구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가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더 관대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의 영역에서도 의학의 기술뿐만 아니고 의료과학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 누군가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거든 너 왜 거기 갔냐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가운데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